

제 105 호

대림 제 1 주일

1974. 12. 1.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 련】

그리스도의 희망



양 재 철 신부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희망에 있다고 한다. 산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정신활동의 원동력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도 희망이 없이는 삶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그 뿌리가 깊지 못하여 죽은 생명의 믿음에 되고만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넓게 하고 신앙을 "삶"속으로 이끌어 들인다.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볼 때, 희망이 결여된 깊은 체념과 절망속에서 죽은 신앙을 안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의 소용돌이, 거짓의 희망으로 강요하고 강요당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생활이 발견된다.

참된 인간회복, 모든 부정과 불의, 죄와 죽음에서 진실된 인간 해방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생활안에서, 참된 희망은 변색되고 날조 되었으며, 끝내는 치욕과 수난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희망은 어떠한 법률이나 체제가 아니고 물질이나 감각적인 쾌락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불완전한 질서를 그 눈진한 질서으로 회복시킴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완전성의 긍정이며 영원성의 긍정인 것이다. 진실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희망은 생의 죽음으로 종말을 고하고 만다. 지상의 생명이 다 했을 때 영원의 문이 개방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참 희망이다 그 때문에 현재의 일체 희망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며 사실상 구원의 개념을 떠나서는 희망이 이해될 수 없다. 희망이 구원에 이르러는 끊임없는 의지이며 현실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내외에 일고 있는 인권회복 운동이 높이 평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참 희망은 언제나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안정보다는 불안정을 던져주고 있다. 그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고 현실에서 고난 당하며 끝내는 악의 세력과 투쟁한다. 현실의 십자가를 대하는 사명도 피동적이 아니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참 희망은 결코 타협이나 무모한 모험일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한 성취를 내다보는 힘찬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슬기있는 현실의 혁신이요, 변화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수난을 통한 부활에 대한 희망이며, 참된 인간 해방과 진리와 평화를 수난과 부활로써 증거하려 오시는 희망의 메시아에 대한 계속되는 기다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밝은 빛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안에 밝혀지기를 빕니다.

(이리 주현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 **입당송**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뵈나이다. 내 하느님께 굳이 바라오니, 이 바람을 헛되이 마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두고 좋아라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자는 부끄러울리 없으리이다.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이사야 2:1-5)

주께서 모든 백성을 영원한 친국 평화에 부르신다.

□ **찬미송**

◎ 주님의 집에 기꺼이 가라이다. 주님의 집으로 가자 할제 나는 몸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받은 이 미서 있노라. ◎

□ 제2독서 (로마 13:11-14 성서 p. 364)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24:37-44 성서 p. 60)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세례요한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라는 광야의 외침을, 대림절 동안 주의 오심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당신의 숲정이 가 두 뜻을 맞이하였읍니다. 이제 교구주보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이모두를 당신의 돌보아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미약한 점이 있으면 당신의 은총으로 더욱 채워 주시어 당신을 찬미하는 큰 도구로 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

3. 주여, 버림받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한 형제적 공동 책임을 갖고 우리 형제들을 도우도록 성신 주소서. ◎

+주여, 당신의 도구로 쓰신에 미약함이 많사오니 당신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기에 당신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 **영성체송**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다.

* 숲정이 산책 *



명실(名實)이 같은 교구 후보가 되기를

김 재 덕 주 교

〈숲정이〉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인은 창간을 축하하면서, 숲정이가 제4지구의 후보로 출범했지만 전 교구의 후보로 확장될 것을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었었습니다. 그 기대는 헛되지 않아 시작한 지 1년여에 제 1지구가 참여하더니, 한 달 전에는 전 교구가 거의 참여하였습니다. (31개 본당 중 25개 본당 참여) 참으로 경하하여마지 않습니다.

현대는 매스컴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한 선교활동과 상호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지에서 볼 때 〈숲정이〉가 짊어진 사명,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숲정이〉는 날로 새로워지는 제반 문제와 사진들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할 일들을 올바르게 제도하는, 의식 개발과 본당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유대강화의 중개자 노릇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진하기 바랍니다.

그간 숲정이를 위해 애써오신 전 발행인 김영일 신부님과 여러 평신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참여하지 않는 본당들도 하루빨리 참여하여 명실이 같은 교구의 후보로 발전할 것을 거듭 기대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교우들의 의식 계발이 숲정이의 사명

김 종 택 부주교

현대를 "가치의 혼돈"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것들은 뒤로 밀려나고 지엽적인 것들이 근원적인 것인양 행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성직자나 교육자, 매스컴이 자기의 사명을 등한시 내지는 포기한데서 온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다고 할 때, 우리 교구 유일의 홍보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숲정이〉가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까.

현시점에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교육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로 남는 것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숲정이〉의 사명은 자명(自明)하게 됩니다. 창간 2주년을 맞는 〈숲정이〉는 앞으로 교우들의 의식계발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교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형자매 여러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선임 발행인인 김영일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포함합니다.

<본지 발행인, 전주교구 부교구장>



온 집안 식구들의 협력이 필요

범 석 규 신 부

〈숲정이〉 발행 2주년을 맞아 축하의 펜을 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숲정이 발행전에는 전주시내 몇몇 본당에서 소규모로 발행하던 후보를 전주시내 6개본당이 합동으로 숲정이라는 순교지의 얼을 되살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후보를 나오게하는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2주년을 맞이 하기까지는 전주시내 본당신부님들과 사도회원들의 끊임없는 협력이 컸으나 특별히 매주일마다 계속되는 이 후보발행의 뒷바라지를 다 맡아주신 편집인 한상갑선생님의 노력의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그 공은 갖난 어린아기를 두살에 이르기까지 키워주시는 어머니의 노고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어린아기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어머니기에 노고는 다 잊고 커 가는 어린이의 대견함만을 보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이웃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저절로 큰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한순간도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끊인적이 없는 사랑의 노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숲정이가 두살이 되기까지에도 편집인의 노고가 이에 못지 않았기에 여기 두 살난 숲정이의 대견스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두살쯤되면 그 활동 범위가 안방에서 마당으로 대문밖으로 넓어지듯 두툼을 맞이 하면서 출생초부터 염원하던대로 이제 전주시내 합동후보로 머물러 있지 않고 명실공히 전주교구 후보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보람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온집안 식구들의 협력이 필요하듯 전교구의 모든 신부님들과 사도회원들의 끊임없는 뒷바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키워주신 편집인 한상갑선생과 아울러 인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보광출판사의 사도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지 인쇄인, 사목국장>



□ 양지쪽 □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아침이면 이부자리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힘들다. 눈을 뜨고서도 신문을 뒤적이는 건 부스덕거리고, 그리고도 한참이나 꾸물대다가 밥먹으라는 독촉을 여러차례 받고서야 겨우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항상 서운하다.

아침을 뜨기가 무섭게 직장으로 정신없이 달려가서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는 하루를 지내고 나면 죽이 되어 버린다. 짜증스럽고 타성에 젖은 개미 쳇바퀴를 또한번 돌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엇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하루 하루가 지나가고 만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구름 흘러가듯 어지럽기만 하다.」 어느 친구의 독백이다.

온통 사람들이 제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우왕 좌왕 하고 있다. 몹시 분주하고 소란스럽기만 하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는 선반위에 올려 놓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가지고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서로를 큰소리이다. 대림절(待臨節)을 지내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깊이 생각할 바가 많겠다. 우리들의 어깨가 무거운 때가 아닌가?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귀로보다는 가슴으로 듣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셔서 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처신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로마 13:11-14)

〈갑〉

요심이 (71) 김병오



□시간안내□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위원 김 병 오



편집사원 박 영 자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림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 신자들의 집 ※

대 지 사 진 관 (2층)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2 6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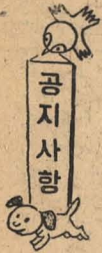
※ 먹을 창조하는 집 ※

사슴양장점

※ 교우에게 특별봉사

김 형 택 (바오로)
전주제신청 앞
전화 2 740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숲정이창간 2주년

1972년 12월3일 창간 (발행인 김영일 신부, 인쇄인 범석규 신부,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1973년 12월23일 제1지구 참여
1974년 11월10일 교구 합동 주보로 발전

2. 주보<숲정이> 우편 사고를 막읍시다.

공소에 숲정이가 배달되지 않는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편집실에서는 발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편집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는 토요일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숲정이> 원고 및 광고 모집

숲정이가 교구내 모든 교우들의 대화의 광장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원고 기다립니다.

※ 원고 길이 200자 원고지 6장 내외

※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 편집실에 문의 바람 (전화 ㉠3498, ㉡3201)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입원: 구역장, 반회장 전원 참석 요망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안도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2. 애령회 총회 및 임원개선: 공식 미사 후
 3. 신용 조합 월례회: 다음주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중노1가 백안나: 6,000원, 인후동 송 데레사: 500원
 중노1가 임 중섭: 1,000원, 중노2가 김순이: 1,000원
 주계 11,500원 누계 1,802,152원
- ※ 오늘 애령회 특별헌금에 협조 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75년도 봉헌금 봉투 찾아가시기 바람 (사무실)
2. 봉헌금 미 신입자 신입 요망
3. 미사 안내
 월, 화, 수: 아침 6시30분(성당 회합실에서)
4. 판공 안내 (반장, 회장 적극 협조 요망)
 12. 9: 동산촌, 12. 10~11: 내동리, 12. 12~14: 미산리, 12. 16~18: 전당리, 12. 19: 덕진, 송천동
 12. 20: 금암, 팔봉, 12. 23: 누락자
5. 신용조합 임원 회의: 다음주 공식 미사후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2. 교무금 신입 및 납부 요망

(본당 운영에 큰 고통 당하고 있음)

- ① 75년도 교무금 예산액: 2,150,000원
- ② 75년도 신입액: 1,219,800원 (11월26일 현재)
- ③ 75년도 교무금 미신입액: 930,200원

※ 순교 복자들의 유해를 모신 본당 교우로써의 긍지와 그 정신을 받들어 신앙 생활을 합시다.
내 본당은 내 힘으로!
지난주 성미 1달 누계 329달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2. 미사 시간 변경 (다음주)
 저녁 7시30분에서 7시미사로
 12월 8일 아침미사: 6시30분에서 7시로
3. 반 회합
 12. 2(16반) 김 한기, 이 양환
 12. 9(18반)월 오전 10시
4. 공소 일정
 12. 2: 의암, 마치리, 12. 4: 구이, 마음리
5. 자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이 려 재

1. 예비자 교리: 공식 미사후, 저녁 미사후, 월요일 7시30분
2. 사도회 월례회 저녁 미사 후 (상임위원 및 자동 반 회장)
3. 유아세례: 오늘 공식 미사 후
4. 교무금 미신입자 속히 신입 요망

◇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고 나자로 (재상) 고 외과 원장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음 정	창 계 안 입 음	첫 영성체식	3,285원	제 3 지구	창 인 동 황 등	청 년 회 창 립 총 회	19,050원
			사도회 월례회 (상임 위원회)	10,555원			미 남 교 무 금 완 납 요 망	3,010원
제 2 지구	대 윤 월 명 동 중	야 울 동 동 동	영 세 자 준 비 교 리	9,130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덕 복 서 학 동 전 등	사도회 월례회	38,811원
			공 소 판 공 순 회 교 육 결 합 성 탄 생 가 연 습				1,705원	애 령 회 총 회 및 임 원 개 선
제 3 지구	고 금 여 주 현 등	산 산 산 등	신 자 가 정 실 태 조 사 서 제 출	30,585원	제 5 지구	남 원 주 장 계 진	사도회 월례회	10,672원
			사도회 월례회	17,885원			사도회 월례회	2,655원
			주 보 월 명 을 교 구 지 숲 정 이 로 편 입	11,865원			첫 영성체 교 리	3,710원
			사도회 월례회	11,865원			신 용 협 동 조 합 강 좌	4,410원
			젊은 어머니 회원 모임	3,445원				
			사도회 월례회	9,646원				
			축 서 품: 황 흥 부 부 제	6,940원				
			예 비 자 특 별 교 리 (성 탄 영 세 자)					